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2008. 12.

제 출 문

수신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본 보고서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유 정 석

연구자

박 승 규(수석연구원)

김 선 기(선임연구위원)

윤 종 현(수석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자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개요	3
1. 사업의 목적 및 기간	3
2. 사업의 범위 및 대상지역	3
3. 사업추진의 근거 및 경과	4
4. 사업추진의 체계	4
III.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동향 및 외국 사례분석	6
1. 관련 연구동향	6
2. 녹색 생태도시 외국 사례분석	14
3. 문화도시 외국 사례분석	23
4. 분석의 종합	30
IV.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현황 및 설문조사 분석	30
1. 사업 현황	30
2. 사업참여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35
3. 200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47
4. 분석의 종합	50
V.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개편방안	51
【참고문헌】	56
【붙임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민대표자 설문조사	57
【붙임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65
【붙임 3】 사업 담당공무원 인터뷰 조사지	73
【붙임 4】 ‘08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74
【붙임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외국사례 리스트	78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책 환경 변화와 균특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기존 사업 검토

- 신정부 들어 정책 환경의 변화 예컨대, 경제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문제가 대두되어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
- 지역발전 정책을 이전의 '균형발전'에서 '녹색성장'으로 시각 전환하여 생태·문화주의적 지역발전이 확산되면서 어메니티와 녹색성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 평가에 따른 사업방향 제고와 시범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

- '0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식 방식의 현실적 한계점 발견과 사업의 원래 취지와 다른 마을간 사업 나눠먹기 사례 발생
- '09년 시범사업 종료로 인하여 지속적이면서 시범지역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개편과 지원사항 모색

□ 시범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이에 대한 대응

- 신정부 이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선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갖는 사업지침과 현실 간의 차이(gap)를 해소하기 위함
- 주민공동체 문제로서 '다문화 가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보완이나 대응

2) 연구의 목적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분석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의 사업에 대한 최근의 현황과 문제점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분석
- 사업의 분석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사업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함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개편방안 제시

- 주요 선진국의 사례분석 결과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개편방안 제언
- 신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과 지역의 실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연계된 사업내용에 대한 새로운 조정
- 시범사업의 종료를 염두에 두고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주민에 의한 지속적 운영과 이를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제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30개 시범지역을 공간적인 범위로 정하고, 사업이 시행된 ‘06년~’08년을 시간적인 범위로 설정
- 연구의 방법으로서 자료수집은 문헌조사, 사례수집,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하여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내용분석, 기술통계분석, 사례분석을 실시
 - 문헌조사(행정 문서, 통계 자료, 평가 자료 등)자료에 대해서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
 - 사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의 녹색생태도시, 문화도시 사례를 수집·분석
 - ‘07년 7월에서 8월까지 시군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 중에

서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담당자의 응답 결과만 분석

- '08년 10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사업담당 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
- '08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30개 시범지역 담당공무원과 주민대표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 실시

II.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및 기간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사례 창출·확산
- 본 사업은 3년 단위 사업이며, '07년~'09년을 1차 사업기간으로 하며, '06년 사업 계획 후 '07년~'09년에 대한 패키지 사업 구상

2. 사업의 범위 및 대상 지역

- 본 사업의 사업 범위는 마을단위로 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1일 30개 지역을 공모를 통하여 최종 선정하였음

<표 2-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0개 시범사업

시도	시군	시범 지역	시도	시군	시범 지역
부산 (1)	기장군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	전남 (7)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경기 (2)	안성시	안성맞춤 커뮤니티 아트타운		무안군	하늘 백련마을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마을		함평군	나비 연꽃마을
강원 (3)	영월군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		완도군	울모래 마을

시도	시군	시범 지역	시도	시군	시범 지역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진도군	시서화의 고장 운림예술촌
	화천군	하늘빛 호수마을		포항시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충북 (2)	보은군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경북 (6)	안동시	안동 산약마을
	단양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		군위군	행복 한밤마을
충남 (2)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 마을		의성군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영덕군	축산아트 프로방스
전북 (3)	남원시	춘향이 열이 담긴 구름다리 마을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 마을
	완주군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밀양시	밀양 연극촌 중심 복합테마마을
	부안군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 마을	경남 (3)	남해군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마을
전남 (7)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함양군	세대와 문화를 이어가는 전통마을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슬로우 월드	제주 (1)	제주시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

3. 사업추진의 근거 및 경과

□ 사업추진의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8조의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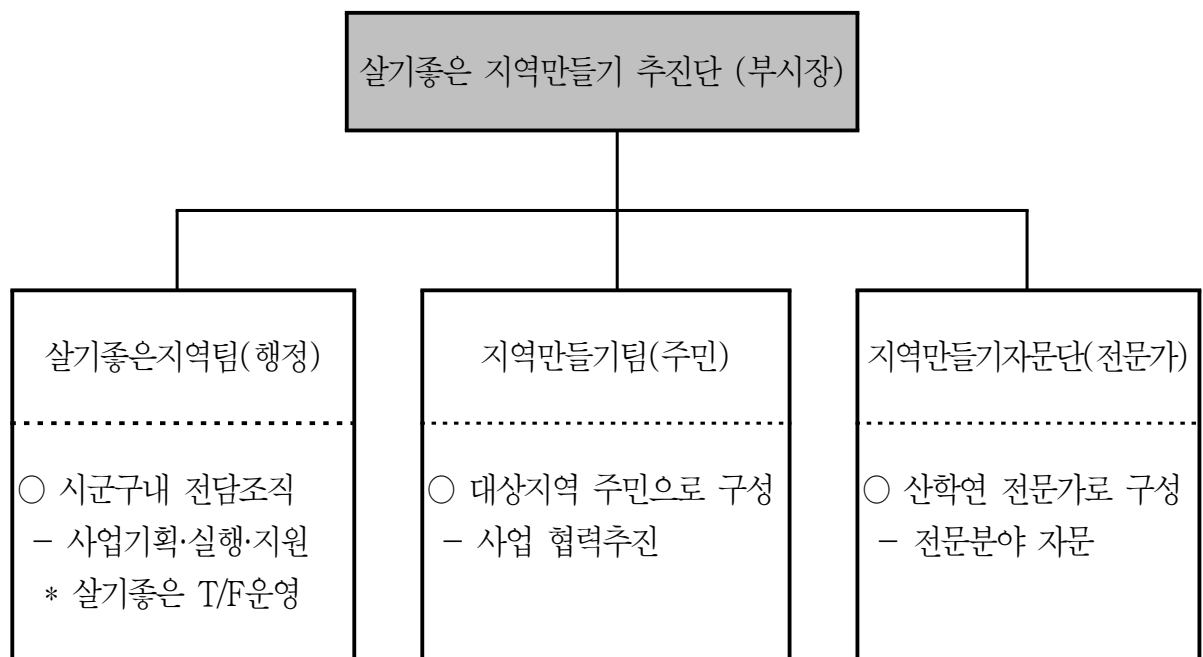
□ 사업추진의 경과

- '06. 3.28 : 행자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결정(국정과제회의)
- '06. 6. 1 : 행자부에 전담조직 신설, 추진기본방향 수립·보고

- '06. 7~9월: 살기좋은 지역 모델(9) 개발, 지자체 제시
- '06.10~'07. 2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공모·선정(30개 시군)
- '07. 3. 27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시행지침 수립·시달
- '07. 2~6월 :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정책패키지 지원규모 확정(시범지역 별 평균 7개사업, 37억원 규모)
- '07. 7. 4 : 30개 시범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컨설팅·확정
- '07. 9~12월 : 30개 시범지역 4대과제별 마스터플랜 수립
- '08. 1월~ : 세부실시설계 후 본격 추진 중

4. 사업추진의 체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부시장을 축으로 하여 행정과 주민 2개 팀과,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됨
- 전문가 자문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인 산학연 전문가에 의해 구성됨



<그림 2-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체계

Ⅲ.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동향 및 외국 사례분석

1. 관련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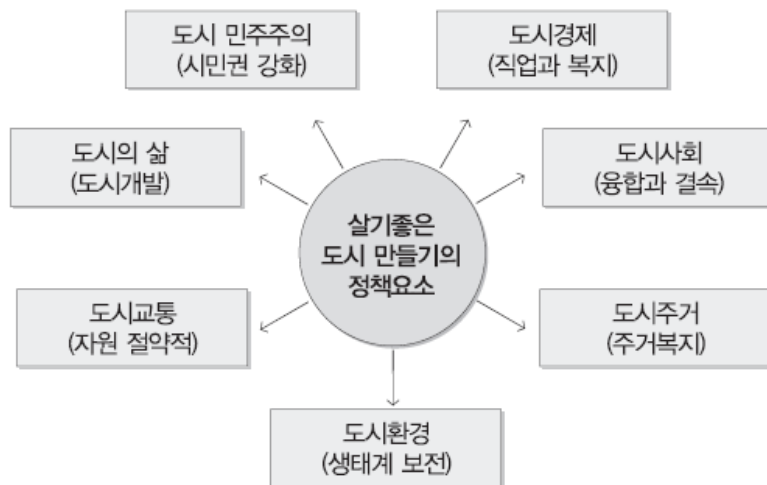
1) 비전 관련 기존 연구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전 제시

- 최병선(2006)은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의 큰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
 - 삶의 장소로서 시민들이 살기 편리한 도시로 가꾸는 것
 - 수준 높은 사람과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창조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
- 살기좋은 도시의 모습은 아름답고 여유 있는 도시, 개성 있고 문화적인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 이를 통하여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도시, 개성과 품위가 있는 도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즐기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 창조적 집단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자본가나 노동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세력을 형성
 - 창조적 집단은 개성이 강하고 개방적이며, 경제적 이익보다는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적인 삶을 선호한다.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경제 발전의 3T라고 불리는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을 고루 갖춘 곳
 - 창조적 경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창조적 집단을 육성해야 함
 - 창조성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 개발, 새로운 사업 조성을 위한 자산의 축적,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의 형성을 촉진해야 함

□ 창조적 사회 건설을 위한 도시 경쟁력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경쟁력 있는 도시는 창조적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 자산의 하나로써의 도시는 규모의 경제를 촉진
 -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장소를 제공하며, 인적 자본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창조적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의 형성 필요
 - 창조적 경제의 중심이 일부 도시들에 몰려 있는데, 도시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재편해야 함
- 우리나라의 도시를 살기좋은 선진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기업이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는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권의 강화, 경제적 기반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 살기 편리한 도시 개발, 자원절약적인 교통체계 구축, 사회적 융합과 결속, 주거복지의 향상, 도시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 등의 분야별 정책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하나로 통합될 때 이루어짐



<그림 3-1>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의 정책요소

□ 도시와 농촌의 지역공동체 복원으로써의 과제

- 이재열(2006)은 지역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이유로써 도시와 농촌 모두 급속한 정보화와 국제화의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와 달리 자급자족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주장
 - 전 인구의 90%가까이가 도시에 살게 된 한국사회에서 도시들이 전국을 뒤덮은 모습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연계성은 점차 증가
 - 농촌도 이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워며, 전통적인 벼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
- 상호연계의 강화는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 과거와 같은 패스워드 시스템의 닫힌 공동체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이 확산되고 있음
 - 도시는 세계시장으로, 농촌은 인근의 도시와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됨
- 개방성의 토대는 이질적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
 - 농촌은 비로소 이질성의 요소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만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음
-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보완적인 연계의 강화를 통해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발전할 필요성 대두



<그림 3-2> 사회구조와 공동체 형성

□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회복

- 실재구조로서의 공동체(지리적, 자연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발현되는 지역성)로, 각 지역의 공간적 특성, 인구 분포, 산업 구조의 특성 등이 주요 측정 항목이 됨
 - 실재 구조란 현실적 생활의 장으로서 인간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양식으로 규정
 - 행위자는 이 실재 구조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행위자가 소유한 지식, 능력, 동기 등의 요인에 따라 상황을 규정, 예상하고 행동
- 관계 구조로써 특정 지역이 외부 지역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폐쇄성-개방성 정도의 정도
 - 지역내, 그리고 지역간 관계 구조는 한편으로 행위를 합리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
 - 일단 형성된 공동체는 상황에 대한 해석틀을 제공하여 향후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침
- 문화적·이데올로기적·심리학적 측면에서 개념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공동체 복원

-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설명하는‘역사적 개념화’가 필요
 - 공동체는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될 대상
 - 공동체는 현재의 정책적 노력 내지 미래 지향적 방향 모색의 대상이 되므로, 정책적·사회 운동적 개념화가 가능함
- 목적에 맞게 생동감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 공동체의 복원은 위로부터의 명령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물리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음
 -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계

획과 구성을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

- 사람과 요소들의 단순집적을 넘어서 높은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발휘
 - 시너지효과의 하나는 개인적 현상을 넘어선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창조성
- 공동체의 복원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민초식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
 - 관 주도의 하향적 정책추진에서 탈피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이 주도하는 참여형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¹⁾
 -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역할의 상호 분담 필요

2) 공간의 질, 삶의 질 향상 관련 기존 연구

□ 중앙정부 의존적이고, 대규모 개발사업 지향적이며, 법령 지침을 앞세운 할거행정 지양

- 지자체, 기업, 주민의 각각 도시 만들기에 어떠한 역할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명확히 하는 일이 필요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지원 하에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스스로 살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는 곳에 이주해 가거나,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여건 또한 이를 지원
 - 기업도 해당지역의 시민으로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주민 및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도시 만들기를 함께 해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함
 - 시민·주민들로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

1) 민주적인 의사결정에는 상향식을 통한 접근이 보다 우월하며, 형평성이 전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책의 효율성과 시기적시성을 고려할 때에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결합한 방식도 때론 효과적일 수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경우 하향식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나, 보다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관에 의한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아래 집행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

는 결사체가 필요

- NPO 형태의 사회조직이 만들어져서 주민활동을 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 만들기를 공론화하고 정책화에 필요한 의제발굴 경주
 -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리더를 육성할 사회조직 형성 고려
 - 사회조직이 바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환경 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의제발굴과 관련 도시 내 커뮤니티 설정 및 조사·분석의 방법론을 정립
 - 조사·분석 결과를 주민과 함께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안과 문제별 또는 과제별로 커뮤니티에 대한 유형화와 접근 방법 등도 고안할 필요 대두
 - 주민, 기업, 지자체가 국가를 포함하여 파트너십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내 및 외부의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공론화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기구로 연구소, 학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범국민적 의제 형성
 - 기존의 조직을 활용한 공론화 주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 주민 조직이 주도하여 동리별 거주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과제 또한 발굴하도록 하며, 행정단위 조직과 사업추진의 동·리 간에 가교 역할을 수행

□ 질적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

- 변창흠(2006)은 플로리다(R. Florida)의 창조도시(creative city) 전략을 제시
 - 창조도시 전략은 단순한 도시의 물적 환경 개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
 - 창조도시 전략은 도시의 창조성을 매개로 도시의 산업과 문화를 상호

연계시켜 도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

- 지역내 주민이나 산업, 환경이 조화롭게 참여를 통한 목표 달성 추구
- 지역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써의 지속가능성, 문화적 다양성, 형평성, 혁신성, 중심성 추구
- 녹색도시, 역사문화도시, 복지도시, 세계도시로의 노력 필요
-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복원을 통한 질적 발전으로 지속가능성 추구
-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로 새로운 발전과 경쟁력의 요소로 활용
-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설치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인 빈곤으로 인한 일탈과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형평성 추구
-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체, 지원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창출 추구

□ 생태도시, 녹색도시의 구상

- 환경적 취약성의 극복을 통한 국제경쟁력 견인
- 수려한 공원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 도모
- 생태도시, 녹색도시 구상은 단순히 도시를 녹화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
- 지속가능한 수도권 환경종합계획을 수립 전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취약한 환경분야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도권 환경종합계획을 수립
-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관리 필요
- 지역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수도권을 녹색도시, 초록도시화하는 노력이 필요

□ 생태도시, 녹색도시의 기본 요건 제시

- 균형발전 선도프로젝트로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숲과 공원·녹지, 호수·하천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 녹색도시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등의 보전에도 큰 역할을 하므로 도시개발시에는 자연지형과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함
 - 공원과 숲, 강과 하천 등을 확충하고 이들을 산책로나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통해 연결하는 녹색길이 조성되도록 해야 함
 - 생활권 단위의 소공원, 근린공원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공원을 적소에 충분히 배치해야 함
 - 녹지와 하천 등 생태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친환경 생활환경을 조성 필요
 -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며, 중수도 등 수자원 절약시스템을 갖춘 에너지·자원절약적 도시 조성 운영
-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미관 구비
 -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는 아파트위주의 획일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개성있는 건축물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도시가 되어야 함
 - 천변 등의 자연경관을 살리고, 특색있는 가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 도모
 - 교량과 문화재 등 주요 시설물은 조형미와 함께, 야간에는 조명을 통해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체계적 플랜 제시 필요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상징적인 랜드마크의 도입을 통해 도시의 경관의 품격 제고 및 도시의 인지성 제고 도모
 - 창조적 건축디자인을 갖춘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자연지형, 생태, 역사·문화, 장소성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요소를 고려하여 도시 전체 및 지구별 경관이미지를 형성 도모
- 건축물 및 구조물의 미관, 가로시설물 설치, 도시환경 색채, 야간경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계획에서 관리까지 통합운영할 수 있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실행력을 강화

2. 녹색 생태도시 외국 사례분석

1) 미국 뉴욕의 녹색도시

□ 도시개요

- 미국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미국 최대도시로 면적 836.8km², 시 지역 인구 8,008천명(2000년)이며, 남쪽은 대서양, 서쪽은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뉴저지주와 접하고 있음
- 독립된 섬으로 되어 있는 맨해튼과 스탠포드섬을 포함해 브롱스, 브루클린, 퀸스 등 5개 자치구로 구성

□ 추진배경

-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건물 벽마다 낙서로 가득 차 있었고, 42번가는 범죄의 소굴이었으며, 뉴욕시의 재정이 좋지 않았을 때 센트럴파크도 한동안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공원이었음
- 1980년대 초 뉴욕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되자, 이러한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줄리아니 뉴욕시장과 시민단체의 리더들 등이 적극적으로 도시 재정비를 추진

□ 주요정책

- 도시 한복판에 대규모 공원 조성
- 1853년 뉴욕 주의회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맨해튼 한 가운데의 부지

를 공원으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856년에는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778에이커를 확보하고, 1858년 프레드릭 로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칼버트 폭스(Calvert Vaux)의 그린스워드 계획(Greensward Plan)이 채택되어 ‘센트럴파크’조성이 시작. 그 후 센트럴 파크는 843에이커(약 103만평) 규모로 뉴욕에서 다섯 번째로 큰 공원

- 1867년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 조성이 시작되어, 2마일 정도에 이르는 미국에서 가장 긴잔디밭을 소유하게 됨
- 이 밖에도 “리버사이드 파크”, ‘배터리 파크’ 등이 조성됨
- 도시재개발을 활용한 녹지 확보
 - 리버사이드사우스 프로젝트’는 1990년 60~70층 높이에 7,600세대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개발허가를 받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자, 7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시민과 전문가, 디벨로퍼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탈바꿈시킴. 이렇게 모인 단체들은 리버사이드사우스 계획협회(RSPC)라는 조직을 만들고 공공공간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임 (토지이용계획: 대지 36%, 도로 12%, 공원 52%)

□ 거버넌스와 리더십

- 공공부문의 우수한 리더십과 함께 시민단체의 리더들이 ‘제3섹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조직을 구성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 성과

- 뉴욕시의 전체면적 중 13.9%인 약 3,500만 평이 도시공원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14.12m²(약 4.3평)에 달함(서울의 약 3배)

□ 시사점

- 시민참여형 조직인 센트럴파크관리위원회(Central Park Conservancy), 배터리파크 시티개발공사(Battery Park City Authority), 리버사이드사우

스 계획협회(Riverside South Planning Corporation) 등의 시민단체 및 공사들이 시와 개발사업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며 조정

- 배터리파크 시티프로젝트, 리버사이드사우스 프로젝트 같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원들을 새롭게 조성
- 계획대지에 일정 부분의 공원을 우선 확보하고 이를 연결하여 주는 그린웨이(Greenways)를 구상하여 도시 공공공간 면적의 두 배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음
-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시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실행전략을 가지고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

2) 미국 보스턴의 그린네트워크 조성

□ 도시개요

- 미국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주의 주도로서, 인구 589천 명(2000년)의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도시 중의 하나임. 고등교육과 의료, 수산업, 하이테크 등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New England 지방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

□ 추진배경

- 보스턴 에메랄드 네클라스(Emerald Necklace)는 프레드릭 로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가 20여년(1878~1896)에 걸쳐 만들어낸 도시의 거대한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임. 보스턴 시내에 거대한 '목걸이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Back Bay Fens, Riverway, Olmsted Park, Jamaica Park, Arnold Arboretum and Franklin Park 등 다수의 공원과 그린웨이(Greenways)로 구성되어 있음
- 에메랄드 네클라스는 총 공원면적이 1,000에이커(122만평)에 이르며 보스턴 시내의 전체 녹지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미국의 역사적 명소로 등록되어 있는 에메랄드 네클라스는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강과 연

못, 다양한 수목과 야생동물 서식지, 인공구조물 등으로 도시민에게 진정한‘보물’이 되고 있음

- 그러나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던 교외화와 구도심의 쇠퇴로 인해 이 지역은 방치되고 황폐화를 겪었으며, 1980년대부터 도시 공원을‘회생’시키고 움스테드의 비전을 복원·발전시키려는 시 당국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있었음

□ 주요정책

- 에메랄드 네클라스의 조성
 - 1980년대부터 10년간 보스턴시와 부룩라인(Brookline)타운이 약 6천만 달러(약 600억 원)를 에메랄드 네클라스의 공원과 수로의 개선을 위해 투자
- 에메랄드 네클라스 관리위원회 구성
 - 에메랄드 네클라스의 지속적 재생과 보전을 위해 1996년에‘에메랄드 네클라스 관리위원회(The Emerald Necklace Conservancy)’를 조직(1998년에 비영리단체로 독립)
 - 에메랄드 네클라스 관리위원회는 민관파트너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도시정부,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의 관련기구, 기업, 환경 및 공원 운동가들이 모여 움스테드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 관리위원회의 프로그램은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시, 부룩라인타운 등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메랄드 네클라스의 경관과 공원, 수로 등을 보호·재생·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프로그램은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원의 재생과 유지
 - 공공교육과 세미나, 전시회, 출판
 - 공공의 공원으로의 접근성 향상
 - 공원보호를 위한 그룹의 조직
 - 일반적 공원의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발적 활동들
- 에메랄드 네클라스의 지속적 복원과 유지

- 에메랄드 네클라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의 구성에 노력. 특히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 안전성, 지속적 연계, 다양하고 변화하는 경관 등으로 움스테드의 비전이었던 ‘지속적이고 연계된 녹지/오픈 스페이스 시스템으로서의 에메랄드 네클라스’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디자인·거버넌스적 노력을 하고 있음

□ 거버넌스와 리더십

- 도시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이외에도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시 녹지 체계의 지속적 관리와 유지가 가능하게 함. 관리위원회는 비영리기구로 시정부와 지역사회의 기구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시 공원의 가치를 환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에메랄드 네클라스 관리위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원 관리와 증진을 위해 단독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에메랄드 네클라스의 집합적 지지자 집단(Constituency)을 창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임

□ 성과

- 시정부와 에메랄드 네클라스 관리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에메랄드 네클라스는 보스턴시 뿐만 아니라 New England 지역 전체가 상징적 녹지 체계로 복원되었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풍부한 녹지경관과 쉼터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보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음

□ 시사점

-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공원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적극적인 리더십
- 도시 녹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하는 시정부와 지역사회 기구들의 노력

3) 영국 래스터의 생태환경도시

□ 도시개요

- 런던에서 북쪽으로 150km 정도 떨어진 잉글랜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영국에서 10번째 정도 차지하는 인구 280천명(2001년) 정도의 공업도시이자 상업중심지임
- 로마시대 이래로 미들랜드(Midland) 지방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임

□ 추진배경

- 대도시의 환경악화로 일상적인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도전을 시도
- 영국의 대표적인 환경도시 래스터시는 이러한 실천적 노력이 도시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주요정책

- 생태환경 전략 수립 및 실천
 - 시정부와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 도시전체에 대한 생태환경전략을 수립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였으며, 도시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녹지보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 전역에 녹색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조성
 - 1974년부터 소어강변을 복구하기 시작하여 10km²의 공원을 조성
- 환경친화적 커뮤니티 개발
 - 재개발사업, 주택단지 개발사업,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을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률을 2011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차량통행량의 감소를 통해 교통사고율도 30% 감소시키는 목표를 제시

- 시정부는 1999년 유럽연합에서 주도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인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를 채택

□ 거버넌스와 리더십

-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정부와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 생태환경 복원, 에너지 저감,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 등 도시전체에 대한 생태환경 전략을 수립하여 총체적으로 접근
- 레스터시는 환경문제 대처를 위해 시정부, 기업, 자원봉사그룹, 도시환경 관련 비영리조직, 지역 언론, 지역 커뮤니티 등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조적 실천을 일궈내고 도시 전역을 환경도시화한다는 계획을 추진

□ 성과

-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 초청된 전세계 12개 도시 중 영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참가하였으며, 1996년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유럽 5개 도시 중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평가되었음

□ 시사점

- 도시가 안고 있는 갖가지 환경문제들은 오랜 세월동안 누적되어 쌓여 온 것으로 레스터시의 사례는 환경도시의 건설이 단지 일부 선도적인 개별프로젝트에 의해 완성될 수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주거 및 여가생활, 경제활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적 과제를 보여주고 있음
- 우리의 경우 국가주도의 산업화에 따라 개발된 대도시들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음. 최근 이들 도시들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개선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인 캠페인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4) 일본 세카타야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 도시개요

- 일본 동경도의 23개 구(區) 중 하나로서 도심 남서방향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흐르는 타마강(多摩川) 외에도 몇 개의 중소 하천을 비롯한 많은 공원과 오픈스페이스가 넓게 분포되어 있음
- 다수의 대학과 미술관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58km²의 면적에 2005년 현재 인구 810천명(418천 세대)이 거주하고 있는 교외 주거형 도시임

□ 추진배경

- 1970년대 고도성장으로 인한 공해와 자연파괴문제 등이 나타나면서 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운동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마찰과 대립이 계속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타협이 시작
- 타협의 결과물로 '마치즈쿠리(지역만들기)'가 나타났고 1975년에 시행된 타이시도(太子堂) 지역의 '목조주택 재정비사업'은 지역만들기의 최초사업

□ 주요정책

- 지역만들기 조례제정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 1982년 '마을 만들기 조례'1)를 제정하였고, 1984년에는 '지역만들기 추진지구'를 지정함. 또한, '마을 만들기 협의회', '전문가과견 제도' 및 '우리 마을 가꾸기 추진원' 등의 제도를 도입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인적·기술적 지원
 - 구청은 세타가야구가 100% 출자한 '세타가야구 도시정비공사' 내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1992년)하여, 주민에게 환경설계와 주민공동체 운동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마을 만들기 구상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 학습기회 제공은 아이디어공모→워크숍→모의실험→공동제작→사업시행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 활동에는 지역의 매력

밭굴과 일자리 만들기, 시설만들기, 규칙 만들기 등이 포함

○ 지역만들기 펀드 설립을 통한 자금적 지원

- ‘지역만들기 펀드’를 설립(1992년)하여 주민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마을 녹화와 공공장소 만들기 제안’, ‘어린이 눈높이의 환경 만들기’, ‘복지마을 만들기’ 등을 테마로 187개 단체를 보조·지원(50~1,000만원)

□ 거버넌스와 리더십

- 주민참여형 지역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
- 많은 NPO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안을 하거나 행정기관과 합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
- 주민협의체를 인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지원체계는 전문적인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마을 만들기가 추진되도록 함

□ 성과

- 오염된 하천과 녹도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주택지 소하천정비, 거리의 화단정비 등)
-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경관 정비 및 공원·광장 정비(타이시도(太子堂) 2, 3丁目지역에는 1,000m²를 넘는 광장이 2곳, 60~250m² 정도의 포켓파크가 16곳 정비되었음, 1999년 기준)

□ 시사점

- 주민협의체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조성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사기를 높이는 등 기폭제 역할을 수행
- 약 30년간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활동상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여 주민활동에 있어서 큰 힌트가 되고 있음

3. 문화도시 사례분석

1) 스페인 빌바오의 미술관 활용

□ 도시개요

-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지방 비스카야주의 주도로 인구 350천 명(2001년)이며, 비스케이만에서 12km 상류인 네르비온강 양쪽 연안을 차지하고, 오른쪽 연안은 구시가, 왼쪽 연안은 넓은 도로를 계획적으로 건설한 근대적 신시가지가 펼쳐져 있음

□ 추진배경

- 양질의 철광석 생산을 배경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제철의 마을로 성장했던 빌바오는 1950~1960년대에 걸쳐 제철, 석유화학공업 등의 중공업을 기반으로 전성기를 맞아 소득수준이 스페인 국내 평균보다 40%나 높은 정도로 경제발전을 달성
-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저임금의 노동력을 배경으로 한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산업이 쇠퇴하였으며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등 경제가 침체
- 1986년 스페인의 EU가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되는 여건하에서, 도시 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주요내용

- 전략구상 책정
 - 빌바오 재생의 기초가 된 것은 1989년 바스크주와 빌바오시가 공동으로 책정한 전략구상임. 그 특징은 삶의 질 향상을 중심에 두고 민관공동으로 도시환경과 경쟁력의 향상을 꾀하자는 점임
- 재개발사업을 위한 싱크탱크 구성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스크州정부 등 지자체가 50%씩 공동 출자한 공사인 ‘빌바오리아 2000’이 중심이 되었으며, 민간 기업, 대학, 바스크州, 빌바오시를 포함한 주변 29개 시와 NPO 등 100 이상의 주체로 구성된 ‘빌바오 메트로 폴리 30’이 조직되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빌바오의 문제점 도출, 문제의 분석, 재생전략의 책정, 집행이라는 4단계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
- 건축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 환경오염 등이 심각하였던 이 지역은 삶의 질 향상을 내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문화에 중점을 두어, 1997년 유명 건축가 프랑크 게리에 의하여 설계되어진 구겐하임 미술관1)을 건립(19개의 전시실을 포함한 7,300여평 규모)
 -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과 ‘미술’의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건축물 하나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 市정부는 구겐하임 미술관 설치를 위하여 건축비 및 미술관에 접근하기 쉽도록 도시를 재구축하는데 3억 달러를 투자

□ 거버넌스와 리더십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사례

□ 성과

-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 첫해에 136만명이 미술관을 방문했고, 빌바오로 하루 1회 운항하던 항공편수를 4회로 확대할 정도로 관광객 방문 쇄도

□ 시사점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전략구상과 재개발공사의 설립 등 체계적 추진
- 기존산업의 쇠퇴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신산업인 문화산업을 통해 극복

- 구겐하임 미술관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도시경제 뿐 만아니라 미술관 주변 네리비온 강가에 대규모 문화단지 조성파 도시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도시환경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유발함. 즉, 상징적인 문화시설로부터 시작된 도시재생계획이 도시전체를 바꾸어나가는 기폭제로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2) 프랑스 Strasbourg의 과거와 현재의 도시

□ 도시개요

-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방에 위치하여 고대부터 도시로 형성되어 온 지역으로, 인구는 264천 명(1999년)으로 인구규모로 볼 때 프랑스 제6위에 해당하며, 면적은 78.27km²로 인구밀도는 3,374명/km²임
- 12~15세기에 세워진 고딕식 대성당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좁은 골목길에 고건축물이 연결되어 있는 역사 도시임. 유럽의회가 위치하여 유럽의 주요 도시와 항공편이 잘 연계된 외교, 정치도시로 발전

□ 추진배경

- 1990년부터 경제적·사회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사회·환경적 난관을 극복하고 서비스와 부를 최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됨
- 1999년 사회당의 카트린 트로트만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스트라스부르의 도시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전래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개발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환경문제를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

□ 주요정책

- 기술혁신단지 건설
 - 1983년부터 산학연 협동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첨단산업단지(Le

Parc of Innovation Technologique)로 일키르쉬 기술혁신단지(Parc of Innovation Technologique of Illkirch)를 조성

○ 도시공동체에 의한 도시재정비

-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간 스트라스부르 도시공동체1)는 도로 및 전차로, 자전거도로 건설, 주택건설 및 지역정비에 의한 주민 유인, 국제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공항 확장, 중심 꼬뮌 간의 균형개발 등 ‘제1차 지역개발계획’을 수행
- 주민 입장의 도시만들기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확충, 근접이동을 위한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촉진, 주택공급의 다양성을 제고하였으며, 공공시설의 통합화를 추진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문화유산 및 경관 고려, 도시 내 수로와 주변지역의 정비, 녹지와 공공 공간에 대한 주민 접근도를 높임
- 알자스지역과 라인강 연안지방 및 유럽 중심도시로서 문화중심기능 및 유럽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육성

○ 마을축제 개최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 일원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있으며, 430회를 넘는 ‘크리스마스 시장’(매년 11월 말부터 연말까지)을 개설하고 ‘빛의 길(Chemin de lumiere)’이라는 야간조명 경관연출의 크리스마스 장터 축제를 개최

□ 거버넌스와 리더십

- 도시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으로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 추진
- 지자체가 주민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개발 정비

□ 성과

- 제1차 지역개발계획(1990~1999년)의 성공적 수행으로 교통정책, 환경정책, 주거정책, 지역경제정책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국가계획의 모범이 되

있음

- 이 기간 동안 공동체의 전체 인구는 6.5%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간 평균 0.7%의 성장률을 의미
- 랑트르프리즈(L'Entreprise)지의 2000년도 도시평가로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에서 1위로 평가된 바 있으며, 특히 고급인력, 기업유치, 생활환경 면에서 모두 우수 점수를 받음

□ 시사점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서비스와 부를 최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모델을 제시
-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공동체의 적극적 수행을 통한 국가계획 모범 형성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도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3) 영국 Sheffield의 문화도시로의 전환

□ 도시개요

-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 요크셔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67km², 인구 513천 명(2001년)이 거주하고 있는 문화산업형 도시
- 셰필드시는 문화산업지구를 조성하여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문화산업 진흥의 성공사례이자, 도심과 지역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전략을 도입한 성공사례로도 꼽히고 있음

□ 추진배경

- 전통적으로 철강으로 유명했던 셰필드가 산업의 쇠퇴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서(실업률 13%),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획

- 시민들의 직업재배치교육
- 시청사 기차역 주변의 중심구역을 문화산업지구로 조성 발전
- 웨필드 시정부는 문화산업지구의‘안정화’를 발전단계의 중점 목표로 정하고, 참여자의 생활과 작업을 함께 배려하는‘삶과 일자리의 균형’전략을 채택
- 거주공간과 생활공간, 작업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개발을 시행

□ 주요정책

- 문화산업도시로 구조전환
 - 웨필드가 철강 중심도시에서 문화산업도시로 구조전환을 시작한 계기는 1978년말 리드밀 아트센터(Leadmill Arts Center)와 1982년 요크셔 예술협회(Yorkshire Artspace Society)가 문화산업단지내에 개관하여문화예술 활동을 개시한 이후부터임
 - 1986년 독립 스튜디오인 레드 테이프 스튜디오(Red Tape Studios)가 설립되어, 오늘날 문화산업단지 조성
 - 1998년 웨필드 시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자원의 산업화모델 제시를 위해 밀레니엄 갤러리를 설립하였으며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중에 있음. 밀레니엄 갤러리는 소도시인 웨필드 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근 도시인 리즈(Leeds), 맨체스터(Manchester), 리버풀(Liverpool) 등 5개 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운영방식을 도입
 - 1999년 문화산업지구 사업계획 수립 발표
- 지역개발 전략 수립
 - 1994년‘새로운 도시’라는 지역개발 전략 수립
 - 1996년 문화생활과 문화산업 발전을 포함한 구체적인 도심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
 - 2001년 도심종합계획(Sheffield City Centre Masterplan)을 수립하고, 웨필드 도심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 추진

□ 거버넌스와 리더십

- 지역정부가 지역의 객관적인 여건을 확인하고 지역에 밀착한 현실적인 비전과 중장기 계획 마련
- 시민, 기업, 공공의 다양한 참여와 파트너십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 혁신주체로서 웨필드 시청은 사업추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문화산업육성의 주요 진행상황을 점검 지원하고, 지역 중장기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중심본부의 역할을 수행. 또한 이해당사자간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상호 의견을 결집하고 조정하는 역할 및 주요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

□ 성과

- 2003년 현재 400여 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문화산업 관련 업체수는 약 150여 개 업체이며 고용인력은 2,000명을 넘어섬
- 연간 2,500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액 기록

□ 시사점

- 시정부의 중장기적 안목에서 일관된 추진 의지와 함께 현실적인 육성업종의 선정 및 집적화를 들 수 있음
- 도시 내부공업지역의 재개발과 효율적인 활용, 지역대학의 역할 및 산학협동 체계의 구축, 시민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접근방식 등이 전반적인 성장요인임
- 지역의 중장기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속적인 지역 내외의 재원확보
- 대외적·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역에서 클러스터의 성장동력 강화

4. 분석의 종합

-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안목을 통한 개발 모델에 준거한 일관된 추진을 통하여 사업의 일관된 추진은 물론 사업의 완성도를 높임
- 지역 자본을 통한 다양한 주체들(시민단체, 전문가, 지역대학, 기업 등) 협력체계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 참여가 가능함²⁾
- 사업 아이디어와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유지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 확산이 가능

IV.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현황 및 설문조사 분석

1. 사업 현황

1) 지역사업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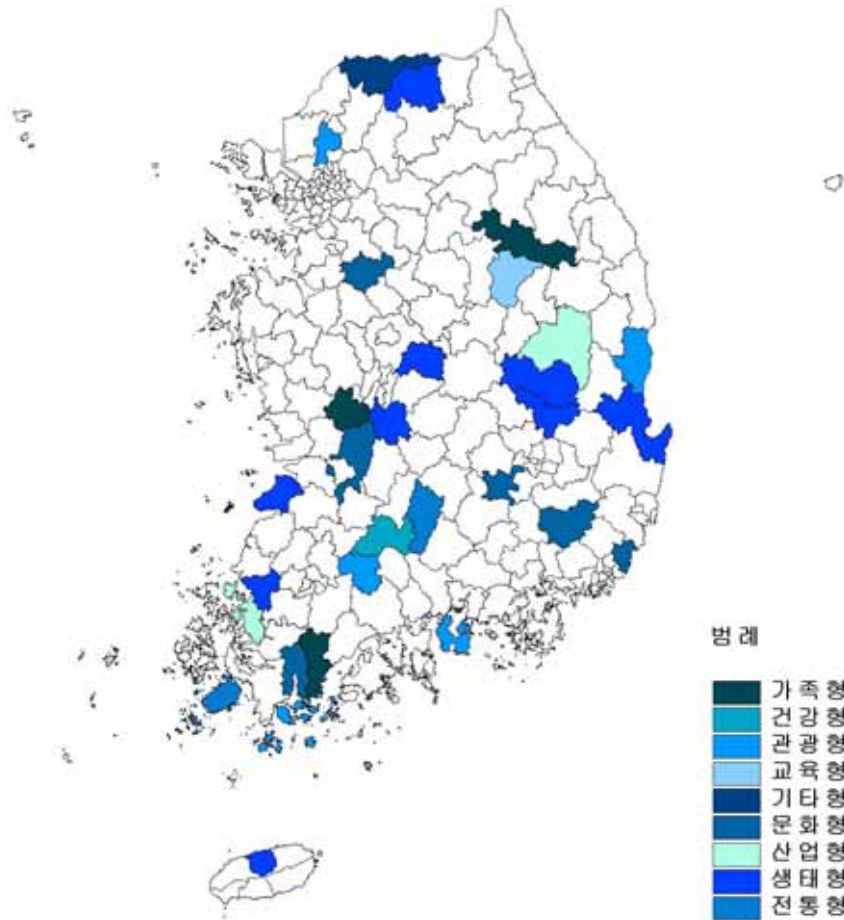
- 10개 시도, 30개 시군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대상으로 선정
- 30개 사업은 9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생태형과 문화형이 각각 30%, 20%로 전체의 1/2을 차지함

2) 사업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다 넓음

<표 4-1>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 지역 모델 분포

(단위 : 개, %)

시도	가족형	건강형	관광형	교육형	기타형	문화형	산업형	생태형	전통형	총합계
강원	1	0	0	0	1	0	0	1	0	3
	(3.3)	(0.0)	(0.0)	(0.0)	(3.3)	(0.0)	(0.0)	(3.3)	(0.0)	(10)
경기	0	0	1	0	0	1	0	0	0	2
	(0.0)	(0.0)	(3.3)	(0.0)	(0.0)	(3.3)	(0.0)	(0.0)	(0.0)	(6.7)
경남	0	0	1	0	0	1	0	0	1	3
	(0.0)	(0.0)	(3.3)	(0.0)	(0.0)	(3.3)	(0.0)	(0.0)	3.3	(10)
경북	0	0	1	0	0	1	1	3	0	6
	(0.0)	(0.0)	(3.3)	(0.0)	(0.0)	(3.3)	(3.3)	10	(0.0)	(20)
부산	0	0	0	0	0	1	0	0	0	1
	(0.0)	(0.0)	(0.0)	(0.0)	(0.0)	(3.3)	(0.0)	(0.0)	(0.0)	(3.3)
전남	1	0	2	0	0	1	1	1	1	7
	(3.3)	(0.0)	(6.7)	(0.0)	(0.0)	(3.3)	(3.3)	(3.3)	(3.3)	(23.3)
전북	0	1	0	0	0	1	0	1	0	3
	(0.0)	(3.3)	(0.0)	(0.0)	(0.0)	(3.3)	(0.0)	(3.3)	(0.0)	(10)
제주	0	0	0	0	0	0	0	1	0	1
	(0.0)	(0.0)	(0.0)	(0.0)	(0.0)	(0.0)	(0.0)	(3.3)	(0.0)	(3.3)
충남	1	0	0	0	0	0	0	1	0	2
	(3.3)	(0.0)	(0.0)	(0.0)	(0.0)	(0.0)	(0.0)	(3.3)	(0.0)	(6.7)
충북	0	0	0	1	0	0	0	1	0	2
	(0.0)	(0.0)	(0.0)	(3.3)	(0.0)	(0.0)	(0.0)	(3.3)	(0.0)	(6.7)
총합계	3	1	5	1	1	6	2	9	2	30



<그림 4-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간 분포

2) 부처·지역별 사업 현황

- 총 8개의 정부 기관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중 행정안전부는 전체 317개 사업 중 12.62%인 40개를 담당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사업 중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에는 2개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기도 사업의 18.18%를 차지함
- 비수도권 지역 중 행정안전부가 많이 주관하는 지역은 전남, 전북으로 각각 21개, 6개으로써 전체 전남·전북 지역 사업중 22.34%, 31.25%를 차지하고 있음

<표 4-2> 부처·지역별 사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계
행정안전부	4	2	1	1	2	21	5	2	1	1	40
	(10.81)	(18.18)	(1.89)	(2.56)	(25)	(22.34)	(31.25)	(12.5)	(10)	(3.03)	(12.62)
농림수산식품부	12	0	5	14	0	30	6	9	5	17	98
	(32.43)	(0.00)	(9.43)	(35.9)	(0.00)	(31.91)	(37.5)	(56.25)	(50)	(51.52)	(30.91)
국토해양부	0	1	0	2	0	5	1	0	1	0	10
	(0.00)	(9.09)	(0.00)	(5.13)	(0.00)	(5.32)	(6.25)	(0.00)	(10)	(0.00)	(3.15)
교육과학기술부	5	0	0	0	1	2	1	0	1	0	10
	(13.51)	(0.00)	(0.00)	(0.00)	(12.5)	(2.13)	(6.25)	(0.00)	(10)	(0.00)	(3.15)
문화체육관광부	2	5	8	11	1	14	1	0	0	0	42
	(5.41)	(45.45)	(15.09)	(28.21)	(12.5)	(14.89)	(6.25)	(0.00)	(0.00)	(0.00)	(13.25)
환경부	0	2	1	6	1	2	1	1	0	1	15
	(0.00)	(18.18)	(1.89)	(15.38)	(12.5)	(2.13)	(6.25)	(6.25)	(0.00)	(3.03)	(4.73)
보건복지가족부	4	0	1	3	1	3	1	1	1	1	16
	(10.81)	(0.00)	(1.89)	(7.69)	(12.5)	(3.19)	(6.25)	(6.25)	(10)	(3.03)	(5.05)
국가보훈처	0	0	0	0	0	1	0	0	0	0	1
	(0.00)	(0.00)	(0.00)	(0.00)	(0.00)	(1.06)	(0.00)	(0.00)	(0.00)	(0.00)	(0.32)
지자체	4	1	2	2	0	13	0	3	1	2	28
	(10.81)	(9.09)	(3.77)	(5.13)	(0.00)	(13.83)	(0.00)	(18.75)	(10)	(6.06)	(8.83)
기타	6	0	35	0	2	3	0	0	0	11	57
	(16.22)	(0.00)	(66.04)	(0.00)	(25)	(3.19)	(0.00)	(0.00)	(0.00)	(33.33)	(17.98)
총계	37	11	53	39	8	94	16	16	10	33	317

- 행정안전부 40개 사업 사업비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체 사업비의 13.54%에 해당됨
- 이중 강원도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는 강원도 전체 사업비의 32.31%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음
- 또한, 경기, 전북, 부산의 사업비도 각 지역 사업비중 36.64%, 35.62%, 25%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수에 비해서 사업비의 비중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3> 지역·부처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계
행정안전부	13,297	16,091	300	150	2,159	16,062	2,800	84	300	50	51,293
	(32.31)	(36.64)	(0.72)	(0.31)	(25)	(12.74)	(35.62)	(2.61)	(1.09)	(0.17)	(13.54)
농림수산식품부	12,133	0	6,124	3,746	0	38,538	520	2,968	10,680	5,011	79,720
	(29.48)	(0.00)	(14.67)	(7.71)	(0.00)	(30.56)	(6.62)	(92.23)	(38.7)	(16.65)	(21.04)
국토해양부	0	3,000	0	3,600	0	11,792	2,679	0	5,554	0	26,625
	(0.00)	(6.83)	(0.00)	(7.41)	(0.00)	(9.35)	(34.08)	(0.00)	(20.12)	(0.00)	(7.03)
교육과학기술부	4,971	0	0	0	500	752	141	0	2,000	0	8,364
	(12.08)	(0.00)	(0.00)	(0.00)	(5.79)	(0.6)	(1.79)	(0.00)	(7.25)	(0.00)	(2.21)
문화체육관광부	1,673	11,020	28,507	14,277	246	50,919	1,000	0	0	0	107,642
	(4.06)	(25.1)	(68.3)	(29.39)	(2.85)	(40.38)	(12.72)	(0.00)	(0.00)	(0.00)	(28.40)
환경부	0	13,782	1,823	24,348	4,000	1,500	300	0	0	4,800	50,553
	(0.00)	(31.38)	(4.37)	(50.12)	(46.32)	(1.19)	(3.82)	(0.00)	(0.00)	(15.95)	(13.34)
보건복지가족부	3,985	0	340	1,225	300	80	421	166	165	186	6,868
	(9.68)	(0.00)	(0.81)	(2.52)	(3.47)	(0.06)	(5.36)	(5.16)	(0.6)	(0.62)	(1.81)
국가보훈처	0	0	0	0	0	1,600	0	0	0	0	1,600
	(0.00)	(0.00)	(0.00)	(0.00)	(0.00)	(1.27)	(0.00)	(0.00)	(0.00)	(0.00)	(0.42)
지자체	2,840	20	254	1,230	0	4,568	0	0	8,900	7,270	25,082
	(6.9)	(0.05)	(0.61)	(2.53)	(0.00)	(3.62)	(0.00)	(0.00)	(32.25)	(24.16)	(6.62)
기타	2,258	0	4,390	0	1,430	300	0	0	0	12,776	21,154
	(5.49)	(0.00)	(10.52)	(0.00)	(16.56)	(0.24)	(0.00)	(0.00)	(0.00)	(42.46)	(5.58)
총계	41,157	43,913	41,738	48,576	8,635	126,111	7,861	3,218	27,599	30,093	378,901

2. 사업참여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1) 인터뷰 및 설문조사의 개요

□ 인터뷰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초진단을 위하여 장흥군, 남원시, 안성시, 영월군, 기장군, 전북, 충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2008년 10월27일부터 10월29일까지 위의 해당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
- 인터뷰의 내용은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의 문제점, 사업의 성과 및 기타 사항으로 구성

□ 설문조사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진단을 위하여 30개 시범지역의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군구 담당공무원 30명과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각각 14명이 응답
 - 설문내용은 주민의 참여도, 사업의 성과, 사업(추진 상 혹은 기타)의 문제점 그리고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개방형 설문형식으로 질의
 - 설문분석은 위의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사용
- 위의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8월 동안에 시군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³⁾ 활용
 - 총 140명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담당공무원을(타 부처 유사사업 포함)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61명이 응답

3) 김선기 외(2007)의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연구에서 140개의 기초자치단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담당자(타 부처 사업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 이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만을 담당한 공무원 11인의 설문응답 결과만을 사용⁴⁾
- 설문내용은 사업의 자율성, 사업관계자들의 참여도, 관련기관의 협력수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화된 설문형식으로 질의
- 설문분석은 기술통계분석을 사용

2) 사업의 특징

- 2008년 주민대표자와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의 특징으로 주민주도 상향식 추진방식, 전문가 개입을 통한 체계적 추진, 워크숍을 통한 정보교환, 국비지원을 통한 소신 행정 가능, 다양한 매뉴얼 제공, 우수지역 벤치마킹 견학 기회 제공 등의 의견 제시
- 주민대표자의 경우 상향식 추진방식과 우수지역 벤치마킹 견학 기회를 사업의 주된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외에 전문가 개입을 통한 체계적 운영을 특징으로 봄
-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상향식 추진방식과 다양한 매뉴얼 제공을 주된 특징으로 보며, 이외에 워크숍을 통한 정보교환, 국비지원을 통한 소신 행정과 우수지역 벤치마킹 견학 등의 의견 제시
- 7개 지역 담당 공무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상향식 지역공동체 참여 방식과 정책패키지를 통한 부처간 협조 방안은 좋은 아이디어며 사업의 특징이라는 의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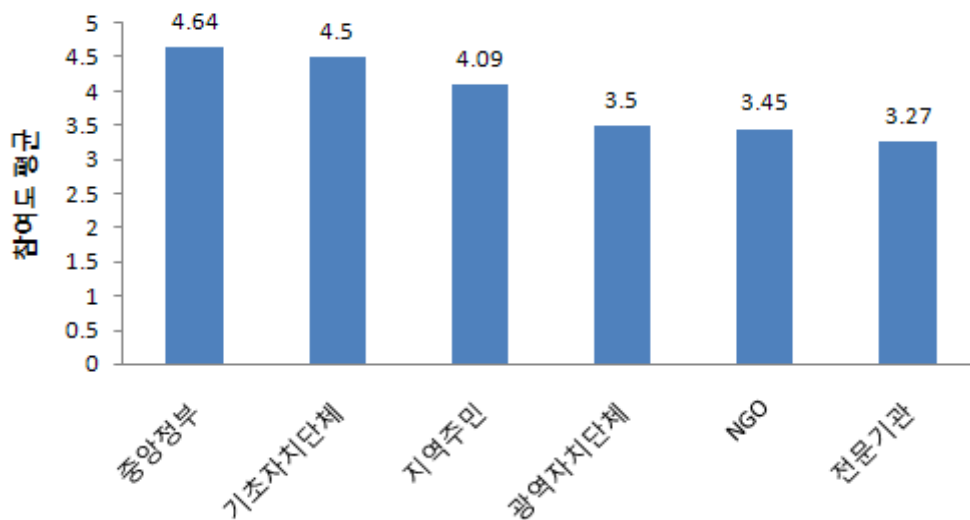
3) 사업관계자 참여정도

- 2007년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광역자치단체, NGO 및 전문기관(대학, 연구기관

4) 설문에 응한 담당자의 경우 보직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다(최소 1개월에서 최대 22개월 사이에 분포)

등) 순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인식⁵⁾

- 상향식 사업방식을 추진하지만 사업과정에 따라서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보여줌
- 현재는 NGO와 전문기관 등의 민간부문의 참여가 정부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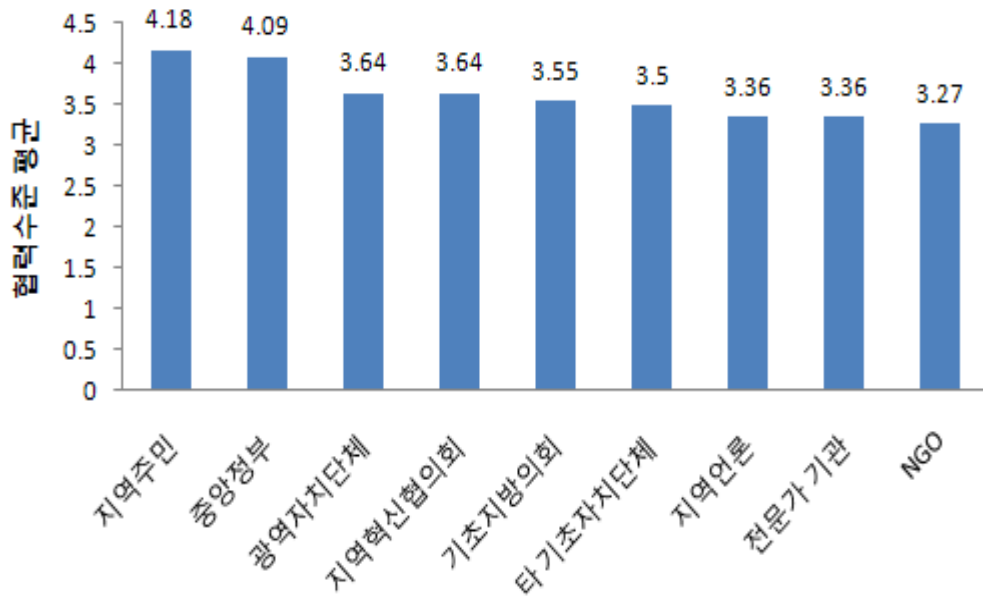


<그림 4-2> 사업관계자별 참여정도

- 또한 사업관계자별 협력수준은 지역주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역 혁신협의회, 기초지방의회, 타 기초자치단체, 지역언론, 전문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NGO 순으로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인식⁶⁾

5) 5점 리커트 척도로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척도값은 1은 '매우 미흡', 2'미흡', 3'보통', 4'주도', 그리고 5'매우 주도'로 설정하였다.

6) 5점 리커트 척도로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척도값은 1은 '매우 미흡', 2'미흡', 3'보통', 4'주도', 그리고 5'매우 주도'로 설정하였다.



<그림 4-3> 사업관계자별 협력수준

- 2008년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추진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물론 주민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행정 주도로 이끌어가는 실정
 - 주민들 개인의 실질적 혜택이 적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
 - 주민 리더의 부재와 주민공동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 참여가 어려움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세부 사업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담당자 조차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 2008년 주민대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월 1~2회 정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회의 사안이나 행사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평균 15~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음

- 하지만 사업초기 단계에 비하여 최근에는 주민들의 관심은 물론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
 -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지역마다 다르며, 이를 운영하는 리더 역량 또한 달라서 지역 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참여가 저조
 - 시범지역 주민들의 고령화, 농번기 등의 이유로 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참여 한계
 - 잦은 교육, 간담회, 세미나 및 관련 행사 동원에 대한 불만 많음
 - 마을사업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 위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한계점은 물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및 소외감 발생

- 또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기여에는 한계가 있음
 - 사업계획 당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한 주민들도 사업 착공시 본인 소유의 토지 제공이 쉽지 않아 실제적인 기여가 감소
 - 사업추진비 등의 항목이 없어서 주민참여 유도 시 리더의 희생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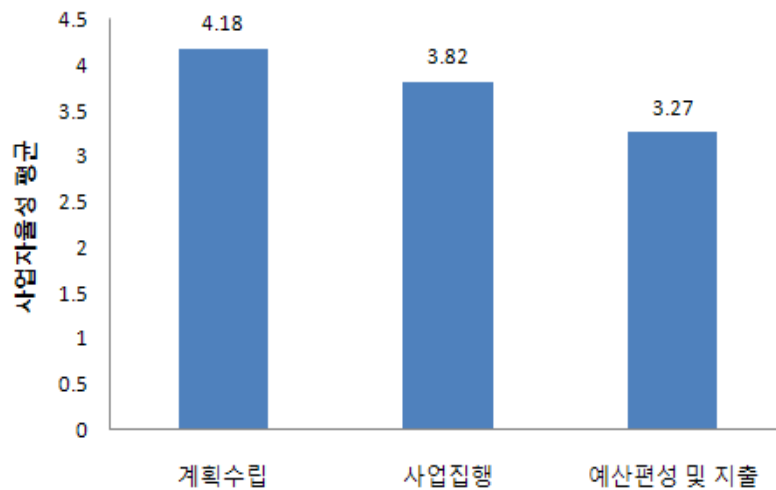
- 이러한 참여의 한계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마을 리더의 장기적인 육성지원과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서 사무장 제도 실시
 - 사업의 연속성과 참여 유도를 위하여 밀양시의 경우 사무장 제도를 실시, 부산광역시 또한 마을 자부담으로 사무장 1인 고용
 - 이외에도 2개 지역에서 정보화 마을사업에서 운영된 적이 있는 사무장 제도를 건의

4) 사업의 자율성 및 연계성

- 2007년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계획수립, 사업집행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지출의 순으로 자율성이 있다고 인식⁷⁾

7) 5점 리커트 척도로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척도값은 1은 '매우 미흡', 2'미흡', 3'보통', 4'주도', 그리고 5'매우 주도'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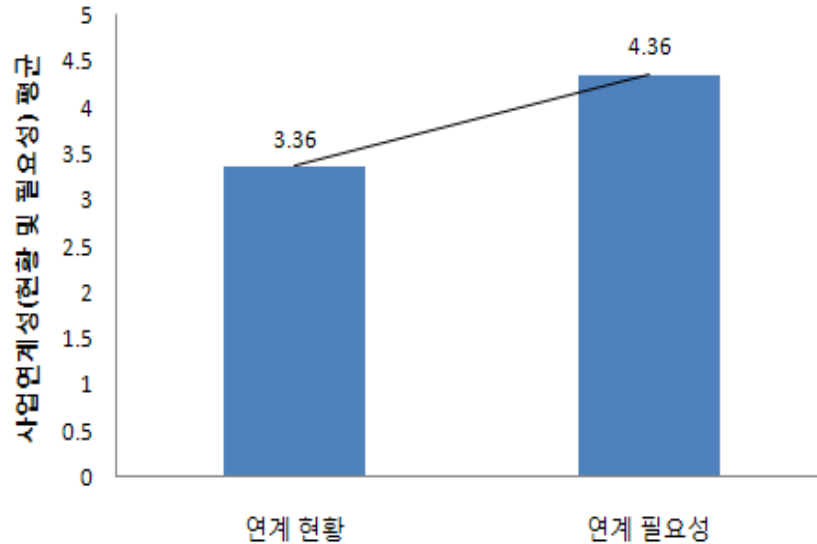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상향식 추진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며, 행정적 처리와 절차에 따라 계획수립 단계에 주민들의 아이디어 반영 등의 참여가 있음을 보여줌
- 2008년 주민대표자의 설문내용에서도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 및 지출에서도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짐을 보여줌
- 또한 주민대표자와 시군구 담당공무원들 대부분이 사업자율성이 높은 것을 이 사업의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4-4> 사업단계별 사업자율성

- 2007년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지만 그 필요성에 비하여 연계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⁸⁾
- 2008년 설문에서도 나타나는 사항인데, 시범지역에 집중 투자함으로 인한 마을(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눠먹기식 접근 존재
-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일부 마을에 대한 집중 투입에 대하여 회의적이어서 사업연계의 어려운 존재

8) 5점 리커트 척도로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척도값은 1은 '매우 미흡', 2'미흡', 3'보통', 4'주도', 그리고 5'매우 주도'로 설정하였다.



<그림 3-5> 지역 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현황 및 필요성

5)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2008년 주민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공동체 의식 저조(주민참여의 저조), 계획과 집행간의 조율의 어려움, 행정지원의 한계 및 자원 부족 등의 문제점 지적
 - 응답자 14명 중에서 7명 정도가 주민공동체 의식의 저조로 주민갈등 심화, 주민참여 저조 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 마을간 나눠먹기식 사업배분은 주민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 마을 간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실제적 자원 투입이 적으며, 이로 인한 가시적 성과가 저조
 -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갈등이 심화되어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임원단이 모두 바뀌었고, 이후에도 갈등이 존재
 -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개발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협의가 어렵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

- 또한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부족
 -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어려움
 - 토지보상비를 실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세금 계산으로 인하여 10% 비용이 더 추가되는 현실 문제 존재
- 2008년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공동체 의식 저조(주민참여의 저조), 지역 여건의 한계점, 운영·지원의 한계점, 지자체 자부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지적
- 앞서 살펴본 주민대표자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주민공동체 의식의 저조로 주민갈등 심화, 주민참여 저조 등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4대 추진과제를 내세우지만 지역의 고령화, 낙후도 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위주 사업이 다수를 차지
 - 운영·지원에 있어서 중앙의 추진 지침이 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업내용으로 전문적으로 업무 처리의 한계
 - 사업 초기와 다른 예산집행 즉,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만감 심화
 - 문화재보호구역의 각종규제는 물론 토지보상비의 지급 문제로 인하여 사업시행 어려움 존재
 - 마을의 자부담이 적고, 군비 부담률 커서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7개 지역 담당 공무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공동체 미비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실제적 운영이 어렵고, 주민활동지원비 사용 제한으로 운영상 불편할 뿐만 아니라 패키지사업이 기반시설 위주로 되어서 사업 간 연계 부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 제시

6) 기타 사업의 문제점

- 2008년 주민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타 사업의 문제로서 중앙정부가 단기간에 사업효과 기대함에 따른 사업의 왜곡, 정책패키지의 비현실성, 행정기관과 주민이 원하는 것과의 차이 존재
 -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성과가 도출되고, 성과의 측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차등지원 등은 원래 의도한 사업을 왜곡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유도
 - 중앙정부의 경우 4대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려 하지만 지역은 숙원사업 위주로 함에 따른 정책적 갭(gap)이 발생
 - 정책패키지가 부처간 협조 미비로 실적이 미비하여 주요 구상사업이 무산됨

- 2008년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역량교육 선행 부재(족),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어려움, 정책패키지의 비현실성, 특성화된 마을사업을 지원한 전문가 부재, 지역 홈페이지 운영의 어려움 등의 기타 사업의 문제 존재
 - 주민역량이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행정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
 - 사업이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사업의 이해가 어렵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
 - 주민 주도에 의한 상향식 추진 방식으로 개별사업 추진 도중 사어계획, 내용 등의 잦은 변경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집행이 어려움
 - 정책패키지 사업의 경우 다른 마을이나 지방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렵고, 부처 간의 협조 또한 기대 이하
 - 고령화된 농촌주민이 지역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특성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할 전문가 부재

7) 사업의 성과

- 2008년 주민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의 성과로서 쾌적한 공간 개선, 주민공동체 강화, 견학과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등이 있음
 - 설문 응답자의 80% 이상이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되어 마을 이미지가 제고되었다고 응답
 - 주민공동체 강화와 주민역량 강화 또한 사업의 주요한 성과라고 인식
 - 이외에도 자생적 지역발전의 기반 마련과 마을가꾸기 운영의 노하우 축적 등의 성과 도출
 - 하지만 지역소득과 관련하여 기반 제고는 되었지만 실제적인 성과 도출은 미미한 수준

- 2008년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의 성과로서 주민공동체 강화, 쾌적한 공간 개선 등이 있음
 - 설문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민공동체가 강화되었다고 응답
 - 쾌적한 공간 개선과 이로 인한 마을 이미지가 제고에 대한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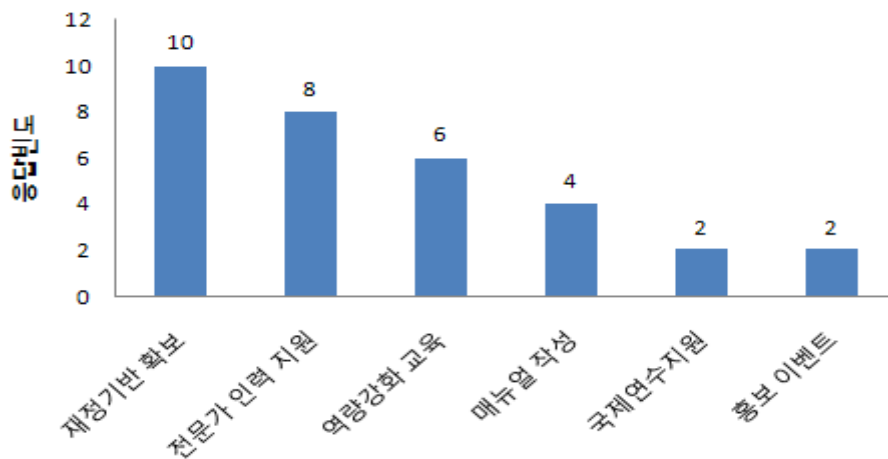
- 7개 지역 담당 공무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참여 고조, 주민공동체 형성 및 마을추진위원회의 사업운영 역량이 강화 등을 성과로 제시

8) 건의사항

- 2007년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집중 지원하여야 할 것을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 제시하는 질의에 대하여 재정기반 확보, 전문인력 지원, 주민·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의 의견이 다수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부담이 크기 때

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추가 확대가 필요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포괄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상향식 추진방식을 따르지만 주민과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필요



<그림 4-6> 중앙정부에 대한 집중 지원분야별 응답빈도

- 2008년 주민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건의사항으로서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방안, 사업비에 편입 토지보상비 책정, 마을 홍보 지원 등의 의견 제시
 -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사무장 제도와 같은 마을 경영 실무자 지원 필요
 - 토지보상비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사업비의 10%는 편입토지보상비로 책정 의견
 - 이와 관련하여 사업비의 현실화 즉, 토지보상비, 주민대표자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 주민갈등으로 인한 마을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투입 재원 줄어들음
 -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지금까지의 소득기반 제고 노력 이외의 마을 홍보를 위한 지원

- 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은행 개설 즉,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권장사항, 참조사항 등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운영하고, 시범지역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평가 목적만이 아닌 실질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자문과 컨설팅 지원
 - 주민들의 자부담을 줄이면서 지역과 주민 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필요
- 2008년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발전방안으로서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리더 전문교육 강화, 4대 과제와 정책패키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정립과 부처간 협의, 기존 평가방식의 제고 등의 의견 제시
-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인 리더 전문교육 강화 지원
 - 이와 관련하여 사업 선정 후 담당 공무원과 주민 리더들에 대하여 2~3개월 교육으로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 교육 필요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핵심인 4대 과제와 정책패키지 정착을 위한 명확한 방향정립과 부처간 재협의를 수행
 - 평가시 서류 및 사진 등의 평가자료를 통한 평가점수는 낮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지 실사를 통한 정확한 사업 추이를 평가
 -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 성급한 성과를 바라는데 지역에 믿고 맡겼으면 한다는 의견
 - 지역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운영을 위한 현장 전문가 필요
 - 정책패키지 사업은 해당지역에서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여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포털사이트의 운영 정상화(접속안되는 날이 많고, 사진, 동영상 등의 업로드 잦은 오류 발생)

3. 200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1) 추진실적 평가의 개요

- 추진실적 평가는 그 간의 추진성과 점검, 개선방안 제시 및 평가결과에 따른 '08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차등 지원의 목적을 가짐
- 분야별 전문가(13명)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상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우수사례 발굴
- 평가결과에 따라 '08년도 인센티브 사업비(1개 지역당 7억원, 총 210억원)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9·8·7·6·5억씩 차등 지원

- 추진실적 평가는 사업의 합목적성, 4대 과제 성과, 지원사항 7개 항목 31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서면평가→현지실사→종합평가 단계적 실시
- 현지실사는 행안부 및 관계전문가로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내용적합성, 공간의 질 실적, 주민참여 및 단체장 의지를 평가
- 서면평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문가 Pool에서 평가지표별로 책임자 엄선하여 합목적성, 공간의 질 추진계획, 삶의 질 향상 추진계획·실적, 지역공동체 복원 추진계획·실적, 소득기반 강화 추진계획·실적, 사업 지원 노력 평가
- 종합평가는 현지실사 위원과 서면평가 위원들이 합동회의를 통해 시범 지역별 평가결과 종합

2) 사업관계자 참여정도

- 주민 주도성이 부족하거나 주민간 상호협력 추진체계가 미흡한 지역이 일부 존재
- 시민단체, 전문가 주도 또는 관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소외되는 지역 일부 발생

- 포항 다무포 고래마을의 경우, 주민 주도 보다는 한동대와 YMCA 중심의 계획 수립·추진으로 주민들이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역할 미흡
-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주민이 주도하는 편이며, 전문성 있는 기관 내지 전문가와의 협력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위의 결과는 부분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문적 지식 및 폭넓은 사고 부족으로 지역의 특 장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방안 제시 곤란
- 또한 주민 주도성이 미비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지역처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확인 필요

3)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평가결과에 따르면 다른 마을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간 사업비의 분산배분(나눠먹기식)이 이뤄지며, 이로 인하여 효율적 투자가 부족한 지역 발생
- 곡성 기차마을의 경우, 6개 마을이 대상지역으로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배분보다 마을간 형평 차원에서 마을별 사업비 분산 배분
- 또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내지 앞서 소개된 마을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사업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전략적 추진 부족
- 기존 지역개발방식처럼 시설 조성 위주의 사업구상으로 시설의 세부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 부족
- 테마거리, 테마공원, 체험장, 전시장 등 시설 구성에 있어 사업테마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콘텐츠 및 시설 운영방안 부족
- 보은군의 경우, 등산로 입구 개선, 방문객 센터, 대추테마공원, 장류체험

장 등 사업이 하나의 테마 및 동선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사업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사업간 시너지효과 창출 곤란

4) 사업의 성과

- 대부분의 시범지역 단체장 및 주민들은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는다는 참여의지와 열기 고조
 - 철원 쉬리마을의 경우, 청년회, 상가변영회, 부녀회 등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낙후된 지역을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 특히 지난해 다슬기축제 개최를 계기로 외부인 유입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확대

-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감 획득
 -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계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협력의식 및 소통이 강화되고 공동체가 형성
 - 지역자원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인식, 교육과 선진지 견학, 소규모 실천 활동 등을 통한 주민의식 성장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감 고양
 - 의성 산수유마을의 경우, 특산물인 마늘 외에 소득원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산수유의 자원성을 인식하고 산수유축제 등 산수유를 사업화
 - 논산 햇빛촌 바랑산마을의 경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의식 수준이 제고됐으며, 특산물 인터넷 판매 시도로 사업성공 자신감 획득

5) 발전방안

- 우수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사업 유형별 단계 성공사례 창출·확산
- 사업의 정상단계 진입을 계기로, 일상적인 지원·지도 기능을 관할 시도로 이전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및 특성화 추진
- 지역만의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 문가 컨설팅단을 파견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지역건의사항)
- 테마거리, 테마공원, 수변공간 디자인 등 외부인 유입을 위한 사업계획이 실제 주민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 등 소득기반사업 구체화 추진
 - 특색있는 공간과 축제·체험프로그램의 연계방안 마련, 지역특산물의 생산·가공·브랜드화 등을 통한 소득증대 추진
 - 살기좋은 지역재단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핵심 마을리더 및 주민들에 대한 교육 실시로 주민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실질적 사업추진 주체로서 역할 강화
 - 우수지역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정례화(월 1회)하고, 수범사례를 포털에 등재하여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 마련

4. 분석의 종합

- 상향식 사업추진방식은 주민공동체 형성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노령화와 주민공동체 형성의 미비로 인하여 형식은 상향식 방식을 따르지만 행정기관에 의존하여 업무추진 상황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열약한 주민참여 상황에서 주민 리더의 역할과 역량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다양한 사업내용과 보조사업 성격, 선택과 집중 투입 등의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집행이 지연되거나,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주민갈등이 내재적으로 존재
 - 사업내용의 해당 범주가 다양하여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업무수행 조직이 분산되어 있어서 일관된 업무처리가 쉽지 않아 사업 지연발생
 - 주민들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보조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선택과 집중 방식의 투자는 다른 마을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눠먹기식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사업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정책패키지와 컨설팅(평가) 지원이 현실 적 합성이 떨어지고, 시범기간 종료 이후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없는 실정
-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방의회 및 타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정책 패키지사업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 수행
- 전문성 보완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컨설팅(평가) 지원이 아니라 사업관리를 위한 컨설팅(평가)으로 인하여 현실적 지원 저조
- 시범사업에 따른 다양한 사업적 시도가 가능하였지만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범기간 종료 후 지속성을 갖기 힘들
- 설문조사에서 건의된 ‘사무장 제도’를 통한 주민 리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V.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개편방안

□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안목과 개발 모델에 준거한 사업 추진

- 지역녹색성장, 다문화가정 행복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업주제를 토대로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 그리고 개발 모델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과 사업의 효과성 확대
- 기존의 상향식 사업추진방식에 따른 사업내용의 다양성은 확보되었지만 장기적 비전에 의한 일관된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여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음
- 또한 기존의 9개의 사업유형은 단순한 사업구분에 불과하고, 이것이 지

향하는 바를 사업을 통하여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다양한 공간 범위 주체들의 참여 기회 확대

- 위의 지역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금보다 넓은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기존의 고령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할 때 사업추진이 어렵고, 자발적 참여와 사업아이디어 또한 제한적이었음 이외에도 선택과 집중 투입에 의한 지역간의 갈등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
-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욱 다양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여 사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주민공동체에서 지역공동체로의 확대를 통한 특화

- 주민참여와 전문성 확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대학, 기업 등의 협력체계 구축
- 기존의 제한적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한 의존적 행태, 주민 리더의 역할과 역량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주민 리더의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또한 중앙의 컨설팅(평가) 지원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고, 시범기간 종료 이후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없는 특별히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마을가꾸기로 특화

- 녹색산업 개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지역만들기 사업의 구현은 국민 삶의 질 향상, 에너지 안보 제고, 과학기술 및 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

- 단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사업의 개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소득을 창출시키며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국정방향과 일치
- 저탄소 사회 비전과 개별 산업 및 지자체의 장기계획과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저탄소 녹색마을사업 필요
 - 온실가스배출 저감 및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목표에 상응한 선정산업 추출
 - 지역의 강점 산업 및 기술과 자연적 특수성(기후, 지리 등) 반영
 - 지역 산업 및 기술과 지자체 유사사업과의 상쇄효과 최소화
- 중장기 저탄소 녹색마을 로드맵 및 시나리오 창출
 - 지자체 사회경제적 니즈 및 지역 산업 및 기술역량을 반영한 특색있는 저탄소 녹색마을 로드맵 구축
-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조성을 위한 녹색마을개발 기금 조성
 -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을 위한 패키지 기금조성을 통하여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마을 자구노력을 지원
- 녹색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지역특화 산업 지원
 -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산업 분야 시장 조성 지원
- 녹색산업 및 기술 분야 인프라 확충
 - 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주요 에너지원별 인프라 설치
- 지역별 녹색산업 및 기술 클러스터-빌리지 조성
 - 지역별 저탄소 녹색산업을 해당 지역에만 적용시키지 않고, 유사한 지역과의 연계를 활성화 시키며, 정의 외부효과의 확산 도모

□ **다문화 가정 행복지원으로 특화**

-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행복 기반 마련
- 지자체 내의 외국인들의 거주 등록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문화 가

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언어교육, 상담활동,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

- 예컨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공공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직업기관을 탐색하고, 정착이 가능하도록 취업 전과정에 대한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한국어 활동, 사회적응 향상교육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영어강사 양성과정, 공개수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현장실습 등) 등 맞춤형 교육 지원

4)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와의 연계화 도모

- 상,하향식인 지자체 시범사업 선정과 하향식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를 통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모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이어 2007년에 공모제를 추진한 사업으로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보다는 작은 단위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지만, 마을가꾸기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의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지역만들기의 핵심인 지역공동체 복원과 주민의식 제고측면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확대 필요
 - 기 시행중인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과 소규모 마을가꾸기 병행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포괄성 제고
 - 주민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복원 및 자생력 강화의 촉매역할 도모
-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연계 활성화
 - 하향식 보조사업에 적용된 일부 지자체와 자부담 능력부족, 행정 의존적 자세, 저조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의 연계 강화 도모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인하여 지역에 지원되었던 패키지를 활용하여,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의 소단위 사업을 보조함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통해 구성된 전문가 자문팀을 활용하여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대상지의 주민과 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접목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중심의 자체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지역과 주민주도의 직접추진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 도모
- 연관 사업의 통합으로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 경주
- 유사한 사업 선정방식 및 진행절차를 가진 두 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비의 효율적인 지출 도모
 -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인센티브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 각종 홍보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홍보의 추진으로 사업취지 및 국·내외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참고문헌】

- 김동주(2005), 균형발전 선도도시 건설과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선기(2006), “주민주도형 지역발전전략: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민선4기 출범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a),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제이플러스
_____ (2006b),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기본계획
_____ (2006c),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미나자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세미나
- 이재열(2005), 도시와 농촌의 지역공동체 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박재길(2005),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박용남(2005),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자발적 노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박양호(2005), 살기좋은 지역으로의 질적발전과 세계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정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진안군·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2007), 제1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자료집
-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 청와대 보고용
- 최병선 외(2005), 도시 변동론과 도시의 질적 발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Florida, R.(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이길태 옮김, Creative Class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붙임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민대표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의뢰를 받아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대표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 중에 부탁을 드려 죄송하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종현 박사

※ 설문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음으로 문의해 주세요.

(Tel : 02-3488-7345)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장점	
①	
②	
③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컨대, 회의 개최수, 참여자 평균인원 등). 이러한 근거 자료가 없을 시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 정도	
① 회의 개최수	
②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 수	
③ 기타	

2-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대표자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행의 어려운 점	
①	
②	
③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앞서 의견을 주신 사업 수행상 뿐만 아니라 기타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점	
①	
②	
③	

2-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대표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장점,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

① 장점

② 문제점

③ 건의사항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실 사업이 추진된 지 2년 정도 되어 이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계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들어나는 성과들을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기술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적이더라도 주민대표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

① 객관적 성과

② 주관적 성과

4.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사업에 대한 보완점 혹은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발전방안	
①	
②	

5. 선생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 소중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붙임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의뢰를 받아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관련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 중에 부탁을 드리 죄송하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종현 박사

※ 설문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음으로 문의해 주세요.

(Tel : 02-3488-7345)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사업 방식, 사업 내용, 사업 지원, 주민참여 등의 해당 사항에 관련된 장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장점

① 사업 방식/내용/지원

② 주민참여

③ 기타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컨대, 회의 개최수, 참여자 평균인원 등). 이러한 근거 자료가 없을 시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 정도

① 회의 개최수

②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 수

③ 기타

2-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담당자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점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행의 어려운 점	
①	
②	
③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앞서 의견을 주신 사업 수행 상에서 만이 아닌 기타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의 문제점

①

②

③

2-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정책패키지 지원 그리고 기타(재정투융자 및 계약제도 특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 실시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사업지원의 장점,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

① 장점

② 문제점

③ 건의사항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성과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실 사업이 추진된 지 2년 정도 되어 이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계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들어나는 성과들을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기술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적이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

① 객관적 성과

② 주관적 성과

4.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발전방안	
①	
②	

5. 선생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6. 선생님께서는 해당 업무를 얼마 동안 담당하셨습니다? _____ (개월)

7. 선생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_____

※ 소중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문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붙임 3】 사업 담당공무원 인터뷰 조사지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서 다른 부처 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4】 '08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항 목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
합목적성	사업적합성 (현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연계성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현지부합성 	10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존자원 활용, 지역특성 반영정도, 창의성 	5	
공간의 질 제고 추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개선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주변 조화성 ■ 독창성, 심미성 및 실용성을 고려한 시설 및 공간 구성 	10	
	추진실적 (현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답고 특색있는 공간(시설) 창조 실적 ※ 지역자원의 보존 및 전통문화와의 조화 고려 추진 ■ 주택 혹은 시설 리모델링 등 마을경관 개선을 위한 노력 ■ 시설 및 공간의 활용성 및 기능성 	10	
삶의 질 향상 추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계획의 적절성 ■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6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실적 ■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4	
지역공동체 복원 추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복원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4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시설, 프로그램 포함) ■ 주민화합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시설, 프로그램) 	6	
소득기반 강화 추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성장동력 발굴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8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노력 ■ 민자 유치실적 및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5	
주민 참여활동	마을환경 정비(현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활동의 적극성 ■ 개인주택 청결 등 불량한 환경의 개선정도 	3	
	주민참여도 (현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및 인지도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및 협력도 	7	
사업지원 노력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여부 ■ PM의 실질적 활동 및 관련 전문가 참여 ■ 조례, 민관협약 등 제도마련 ■ 정책패키지 예산 확보 노력 	10	
	단체장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련재원 확보노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해도 및 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현장평가) 	2	
	주민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및 마을의 물적 부담(재정, 토지 등) 정도 	5	
시기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조기추진 정도 	2		
총점			100점	

1. 합목적성 (15점)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평점기준	평점
사업적합성 (10점)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연계성	0 ~ 5	
	-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현지부합성	0 ~ 5	
차별성 (5점)	- 지역 부존자원의 활용정도	0 ~ 2	
	-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특성	0 ~ 1	
	- 독창적 아이디어 발현 등 창의성	0 ~ 2	
소 계		0 ~ 15	

2. 공간의 질 제고 추진 (20점)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평점기준	평점
추진계획 (10점)	-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0 ~ 3	
	- 주변환경 및 지역특성과의 조화성	0 ~ 2	
	- 디자인안의 독창성, 심미성	0 ~ 3	
	- 실용성을 고려한 시설 및 공간 구성	0 ~ 2	
추진실적 (10점)	- 아름답고 특색있는 공간(시설)창조 실적 ※ 지역자원의 보존 및 전통문화와의 조화를 고려	0 ~ 4	
	- 주택개선, 노후시설 정비 등 마을경관 개선 노력	0 ~ 3	
	- 시설 및 공간의 활용성 및 기능성	0 ~ 3	
소 계		0 ~ 20	

3. 삶의 질 향상 추진 (10점)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평점기준	평점
추진계획 (6점)	-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0 ~ 3	
	-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0 ~ 3	
추진실적 (4점)	- 생활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실적	0 ~ 2	
	-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	0 ~ 2	
소 계		0 ~ 15	

4. 지역공동체 복원 추진 (10점)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평점기준	평점
추진계획 (4점)	-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0 ~ 4	
추진실적 (6점)	- 주민역량 및 마을리더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시설, 프로그램 포함)	0 ~ 3	
	- 주민화합 및 주민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시설, 프로그램 포함)	0 ~ 3	
소계		0 ~ 10	

5. 소득기반 강화 추진 (13점)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평점기준	평점
추진계획 (10점)	- 핵심성장동력 발굴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0 ~ 4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0 ~ 4	
추진실적 (5점)	-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노력 ·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 브랜드 창출 노력 · 신상품 개발 및 상품 품질향상 노력 · 놀거리, 먹을거리, 머물장소 등 관광자원 발굴 · 상품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유통체계 개선 - 민자 유치실적 및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0 ~ 5	
소계		0 ~ 13	

6. 주민참여활동 (10점)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평점기준	평점
마을환경 정비(3점)	-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활동의 적극성 - 개인주택 청결 등 불량한 환경의 개선 정도	0 ~ 3	
주민참여도 (7점)	-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실질적 참여 및 사업 인지도	0 ~ 3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및 참여활동	0 ~ 4	
소 계		0 ~ 15	

7. 사업추진의지 (22점)

세부항목	평 가 지 표	평점기준	평점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10점)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과단위:2점/계단위:1점/없음:0점)	0 ~ 2	
	- PM의 실질적 활동 및 관련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개최횟수 :5회 이상:2점/3회 이상:1점/3회미만:0	0 ~ 2	
	- 조례, 민관협약, 마을규약, 법인설립 등 제도마련여부	0 ~ 1	
	- 국가 및 시도차원 정책패키지 예산 확보 노력 (국가차원:5억이상:2점/2억이상:1점/2억이하:0 시도차원:7억이상:3점/5억이상:2점/2억이상:1점 /2억미만:0)	0 ~ 5	
단체장 의지 (5점)	- 지방비 확보노력 · '07~'08 시군비 10억 이상 : 3점 '07~'08 시군비 6억 이상 : 2점 '07~'08 시군비 3억 이상 : 1점 '07~'08 시군비 3억 미만 : 0점	0 ~ 3	
	- 사업 이해도 및 사업에 대한 관심정도	0 ~ 2	
주민 의지 (5점)	- 주민 및 마을의 사업비 자부담 정도 (1천만원 이상:3점/5백만원 이상:2점/2백만원 이상:1 점/없음:0)	0 ~ 3	
	- 주민 및 마을의 무상사업부지 제공 정도 (2곳 이상:2점/1곳 이상:1점/없음:0)	0 ~ 2	
시기적절성 (2점)	- 사업의 조기추진 정도 (착공 및 실시설계 일부완료:2점/실시설계업체선정 및 입찰공고:1점/마스터플랜 미완료:0)	0 ~ 2	
소계		0 ~ 22	

【붙임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외국사례 리스트

1. 유럽

명칭	유형(내용)	지역	비고
레스터	생태환경도시	영국	시정부와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 생태환경전략 수립 및 실천/ 환경친화적 커뮤니키 개발
핀드혼	생태마을	영국	생태마을 프로젝트추진, 에코단지
쉐필드	첨단산업도시 도시재생	영국	산업혁명발상지로 철강산업중심지. 이후로 쇠퇴
밀턴케인즈	녹색도시형 생태도시 물순환형 생태도시	영국	도시전체에 녹지축형성, 숲의도시조성 하천을 중심으로 한 주거단지 조성 수로와 녹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스템
그리니치 빌리지	물순환형 생태도시	영국	아파트 오수 처리 위해 습지조성
에콜로니아	물순환형 생태도시	네델란드	습지 조성하여 소규모 홍수 조절
크론스베르그	물순환형 생태도시	독일하노버	빗물 이용 친수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
벨렙 주거단지	물순환형 생태도시	덴마크	생태주거단지 내 생태호수, 습지 조성
키르하스테이그필드 신주거단지	물순환형 생태도시	독일포츠담	빗물을 집수하여 생태연못, 수로, 정원의 관수용 등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조성
런던	생물다양성 생태도시	영국	2002년 생물다양성 전략작성
베를린	생물다양성 생태도시	독일	도시중심에 거대한 녹지공간두고 이를 도시외곽으로 확장시키는 공간계획수립
프라이부르크	에너지절약형생태도시 자원절약형생태도시	독일	태양광주택단지 조성 건축폐기물 재활용
에콜로니아	에너지절약형생태도시	네델란드	태양광주택단지 조성
포츠담플라자	생태도시	독일포츠담	방사형으로 바람이동 유인
코펜하겐	문화도시	덴마크	도시의 문화·예술 강조
크라코프	문화도시	폴란드	폴란드 옛수도, 동유럽문화중심지 유럽문화도시2000 선정,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빌바오	문화도시	스페인	세계적 문화시설(구겐하임미술관) 유치 도시경영형 문화전략 추진
스트라스부르	문화역사도시	프랑스	중세와 현대 공존
쉐필드	문화도시	영국	문화산업지구 조성. 문화산업 진흥
시스타	첨단과학산업도시	스웨덴	스웨덴정보통신산업의 메카
울루	첨단과학산업도시	헬싱키	노키아 진출. 울루시가 관리하는 기업TP
뉴캐슬	첨단과학산업도시	영국	커뮤니티 뉴딜정책, 도심재생계획으로 경제회생
소피아 앙띠폴리스	첨단과학산업도시	프랑스	과학공원 개발. 대기업, 연구소, 벤처기업 진출
하이델베르크	대학도시	독일	독일 학문, 문화, 예술의 중심지, 산학연계에 의한 R&D Park 조성
캠브리지	대학도시	영국	우수한 공학적 전통, 혁신거점으로 성장
에딘버러	관광도시	영국	축제(프린지 페스티벌 등)
파리 블라쥬	관광도시	프랑스	파리 도심 속 해변
아그리콘벨리	귀향마을(농업혁신도시)	덴마크	농부, 농업관련 기계장비류 생산자들과 연구단체들간의 협력 도모

2. 미국

명칭	유형(내용)
뉴욕	생태도시(빌딩숲사이의 녹색공간)
보스턴	그린네트워크조성
필라델피아	대학의 리더십에 의한 지역만들기
보스턴	대학의 연계에 의한 지역사회개선
선시티	은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
데이비스시	단지를 가로지르는 소형 수로
시애틀	도로와 주거단지 사이에 조성된 자연배수체계
델코타	Dakota Valley Recycling program
산타클라라 카운티	살리콘밸리 첨단과학 산업도시
라스베가스	카지노사업에서 최고의 주거환경여건을 갖춘 도시로
아팔라치아	지역개발사례 낙후지역개발 성공
산호안카운티	가고싶은 섬
사이프러스 빌리지	자연환경속의 공동체 마을

3. 일본

명칭	유형(내용)
도요타	자동차클러스터
세타가야	민관협력에 의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도요타	자동차 산업도시로의 전환
센다이	숲의도시(하천을 중심으로 공원 조성)
아야정	지역가꾸기운동(지자체 단위의 유기농업 활성화)
마치즈쿠리	지역만들기 운동(누카타 산촌지역)
나고야	노리다케공원(생산시설의 흔적이 명소로)
노고노지마 하쓰시마	도서정책
오구니마을	일본삼나무를 통한 그린투어리즘
오이타현 유희인	농촌어메니티와 지역활성화(1촌1품)
오이타현 쇼와마을	옛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적 분위기 마을
오이타현 오야마마을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모든 역량 집중
미야자키현 아야마을	산촌에 기업체를 수용한 마을 혁신
오이타현 나오이리마을	독일식 마을 조성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활동
센다이	숲의도시(하천을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
오이타현 아지무마을	그린투어리즘 특성화
도치기현 마시코 마을	전통공예품을 특산화 시킨 마을
군마현 가타시나마을	자연친화적인 자연습지를 이용한 산촌마을

4. 기타 지역

명칭	유형(내용)	국가
밴쿠버	자연에 파묻힌 도시생활(주거근접 그린웨이 만들기)	캐나다
시드니	도시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물순환체계 구축	호주
크리스탈워터즈	생태마을	호주
마케도니아	지역산업의 활력을 위한 지역기술계획	그리스
키오스	도서개발정책	그리스
필스라이프	농촌복합생활공간	필리핀
요하네스버그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	남아프리카
꾸리찌바	폐기물 분리처리 및 재활용면에서 탁월한 생태도시	브라질
푸트라자야	자연환경과 도시기능·문화의 조화	말레이시아
저우장 마을	물의 고대도시	중국
손교	농업개발구	중국
소주	실크산업및 제품이 유명한 도시	중국
중관촌	중국 첨단산업 발전의 3개거점(R&D중심의 두뇌기능)	중국
보고타	차없는 거리	콜롬비아